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SECRETS TO RULING SCHOOL

가제 : 학교를 지배하는 비법 시리즈

저자 : Neil Swaab

출판사: Harry N. Abrams

발행일: 2015년 9월 1일

분량 : 23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못된 친구들, 엄격한 학교 규칙, 무서운 선생님들이 가득한 중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중학교 1학년 개학일, 윌리엄 H. 태프트 중학교의 ‘신입생 환영위원회’ 대표라고 자처하는 맥스 코리건은 낮설고 두렵기만 한 중학교 생활에 대해 자신이 전부 다 알려주고 돌봐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신입생을 위한 공식 자료’까지 직접 만드는 정성까지 발휘한 맥스의 실체는 사실 착실하고 다정한 안내자와는 정반대다. 신입생을 위한 자료집만 열어봐도 알 수 있듯이, 아무 것도 겁낼 것 없는 ‘쿨’한 중학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맥스의 호언장담은 어딘가 허술하다. 공부하지 않고도 시험 점수를 잘 받는 법이나 안 아픈데 아픈 척 하고도 들키지 않는 법, 괴롭히는 친구들이 잔뜩 겁을 집어먹게 만드는 법, 학생들에게 사이코로 불리는 선생님들을 대하는 법 등 기대와 전혀 다른 정보들이 맥스의 장난기 가득한 설명으로 전해진다. 소심하고 겁 많은 초등학생 그레그의 학교 생활을 그리며 폭력 문제, 친구들과의 갈등을 현실적으로 그린 아동 도서 『Diary of a Wimpy Kid(웬피 키드 일기)』와 여덟 살부터 여든 살까지 남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80가지로 정리한 가이드북 『The Dangerous Book for Boys(남자들이 읽으면 위험한 책)』이 합쳐진 듯한 맥스의 이 풍자 가득한 가이드는 독자와 책 속 주인공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며 생생하게 전달된다.

맥스의 충고는 우선 새로 시작된 중학교 생활에 대한 환상부터 깨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으로 시작된다. 입학 전에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고, 덩치가 여덟 배나 큰 강패들과 수시로 마주쳐야 하고, 학생들 괴롭히는 일을 무엇보다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우글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부러울 만큼 자유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학교 규칙들이 앞으로 더욱 못살게 굴 것이라고 경고하고는, 이 경고가 절대 과장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자신이 알려주는 방법을 받아들이면 이 험난한 학교 생활도 그나마 견딜 만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떠올린 해결 방안은 바로 ‘패거리 단위로 해치우기’이다. 학교 생활 전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패거리들, ‘친구’라고 절대 부를 수 없는 이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맥스는 자신이 고안한

‘일주일 해결 계획’을 당당히 소개한다.

영똥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주는 가이드북

자신은 유능한 ‘인생 코치’이므로 중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게 해줄 팁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맥스는 밴드 생활에 몰두하는 부류, 정신병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부류 등 범상치 않은 패거리를 하나씩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피하거나 이기는 방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체육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법, 시험날 들키지 않고 컨닝하는 법, 정학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 시간을 즐기는 법 등 참신하지만 황당한 ‘해결책’을 늘어 놓는다. 교내 화장실 한 곳에 ‘상담 사무실’까지 지정해놓고 진지하게 설파하는 맥스의 이 엉뚱한 계획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독자들은 금세 그의 실체를 알게 된다. 맥스는 스스로가 이상한 패거리로 분류한 그 어떤 학생들보다 더 지독하게 말 안 듣고 길들여지지 않은 천하의 말썽꾸러기이며, 통찰력이라곤 눈곱만큼도 없고 절호의 기회도 모르고 날리거나 일부러 없애버리는 골치 덩어리라는 사실이 여지 없이 드러난다. 맥스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장난은 때로 더 없이 사악해서 독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유난히 새로운 생활에 겁을 많이 집어 먹는 학생들이나 용기가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맥스의 조소 섞인 설명과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자신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위 도서는 <학교를 지배하는 비법> 시리즈의 제 1권, ‘시도는 해봐야 한다, 규칙 파괴자의 가이드북(Without Even Trying, The Rule-breaker's Guide)’으로, 2권 ‘학급 선거(Class Election)’가 올해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네일 스왑(Neil Swaab)은 파슨 디자인 스쿨의 조교수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제임스 패터슨(James Patterson)의 저서 『Middle School: My Brother Is a Big』을 비롯해 「뉴욕타임스」 등 다양한 간행물에 일러스트를 제공했다.

제목 : THE IMPOSTOR QUEEN

가제 : 가짜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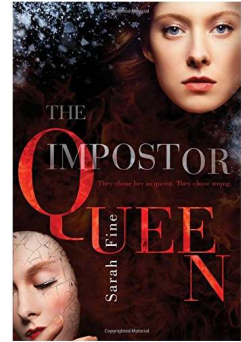
저자 : Sarah Fine

출판사: Margaret K. McElderry Books

발행일: 2016년 1월 5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선택된 운명의 주인공만이 오를 수 있는 여왕의 자리, 불과 얼음의 마법을 모두 가진 특별한 존재

불과 얼음의 마법을 부릴 줄 아는 사람들, 쿠파리는 먼 옛날부터 마법사들의 우두머리인 여왕의 지배를 받았다. 그 두 가지 마법 중 한 가지만 부릴 수 있는 쿠파리들과 달리 여왕은 불과 얼음 모두를 마음대로 다룰 줄 아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발티아’로 불리는 쿠파리의 여왕은 아주 어릴 때 정해진다. 구리와 같은 불그스름한 머리카락과 새파란 눈, 하얀 피부에 선명하게 새겨진 핏빛 불꽃 모양의 모반이 자라서 발티아가 될 운명임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제 열여섯 살이 된 엘리도 그 조건에 딱 맞는 소녀로, 여왕의 밑에서 왕국의 중대사를 책임지는 원로원으로부터 일찍이 발티아의 후손으로 선발되어 왕궁에서 자랐다. 나중에 여왕이 될 몸이기에, 엘리는 인생의 멘토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인 발티아를 늘 지켜보면서 자신도 그녀 못지 않은 훌륭한 여왕이 되리라 다짐했다. 그런데 쿠파리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던 적들이 공격을 가해 오고 이들로부터 왕국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던 발티아가 숨을 거두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쿠파리 왕국에서는 대대로 선대 여왕이 세상을 떠나면 강력한 마법의 힘이 죽은 여왕의 몸에서 곧바로 빠져 나와 새로이 여왕 자리에 오르게 될 사람의 몸으로 흘러 들어갔다. 엘리도 여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왕위를 이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채 경건하게 기다렸지만, 불과 얼음의 마법은 엘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원로원을 비롯한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뜻밖의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엘리는 그 특별한 힘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고문에 가까운 시도들, 절박함 속에 이루어진 고통스러운 노력들을 다 하고 나서도 결국 엘리는 불과 얼음의 마법을 부릴 수가 없었다. 엘리가 여왕은커녕, 마법을 단 한 가지도 부릴 수 없는 빈강통이라는 치욕스러운 진실이 드러나자 원로원은 결단을 내린다. 여왕의 자리에 오를 진짜 후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불시에 엘리의 목을 그어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 잔인한 결정을 문 뒤에서 엿들은 시녀가 재빨리 전해준 덕분에, 엘리는 가까스로 죽음을 피해 궁전 밖으로 달아난다. 그러나 옷 하나도 혼자 입지 못할 만큼 할 줄 아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엘리는 황량한 들판을 하염없이 헤맬 수 밖에 없었다.

여왕이 되지 못한 소녀, 낯선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발티아 왕국, 불과 얼음의 마법에 얽힌 진실

수치심과 불명예를 안고 어쩔 수 없이 궁전에서 쫓기듯 도망친 엘리는 울창한 숲 속을 돌아 다니다가 누군가 공을 잡으려고 놀아둔 덫에 걸려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만다. 그러나 죽기 일보직전, 기적처럼 나타난 사람이 엘리를 구출해 어딘가로 데려간다. 정신을 차린 엘리가 눈을 뜬 곳은 어느 동굴 안이고, 그를 구해준 건 오스카라는 이름의 건장한 남자였다.

오스카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한 엘리는 뜻밖의 사실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한다. 발티아에서는 불과 얼음의 마법 중 한 가지라도 부릴 줄 아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 안에서 따로 모여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성 바깥에서 모여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카는 얼음의 마법을 부리고, 동굴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불을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발티아의 지배에서 벗어나 숨어 사는 사람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엘리는 무엇 하나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세상에 태어나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곱게만 살아온 그녀에게 배움은 끝없는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엘리는 불과 얼음, 피, 구리, 특별한 능력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진실과 함께 왕국에서 도망쳐서 사는 이 무리가 원로원을 비롯한 특권 세력을 무너뜨리고자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반란군이 일으킬 전쟁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엘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왕국 사람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거뒀던 소중한 친구들을 돕고 싶은 열망에 동시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스카를 향한 마음도 서서히 깊어지기 시작한다. 엘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발티아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등장 인물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마법의 능력이 특별한 한 명에게만 전해진다는 설정 또한 이야기의 흥미와 긴장감을 더한다.

<저자 소개>

새라 파인(Sarah Fine)은 아동 심리학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Of Metal and Wishes』, 『Of Dreams and Rust』, 『The Guards of the Shadowlands』 등을 발표했다.